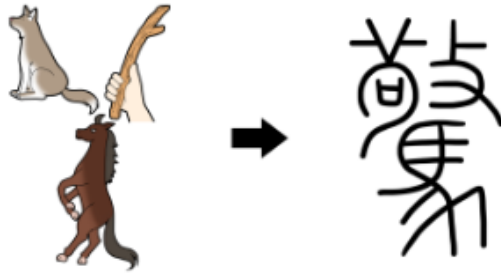


4
-
21

회의문자①



驚

놀랄 경

驚자는 '놀라다'나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驚자는 敬(공경할 경)자와 馬(말 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敬자는 개와 몽둥이를 함께 그린 것으로 '공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발음과 함께 몽둥이를 든 모습이 응용되어 있다. 말은 낯선 사람을 보면 쉽게 놀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다른 동물에 비해 쉽게 놀라고 또 놀랄 때는 앞발을 들고 펄쩍 뛰기까지 한다. 驚자는 이렇게 쉽게 놀라는 말의 성격에 비유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니 敬자는 발음역할 외에도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응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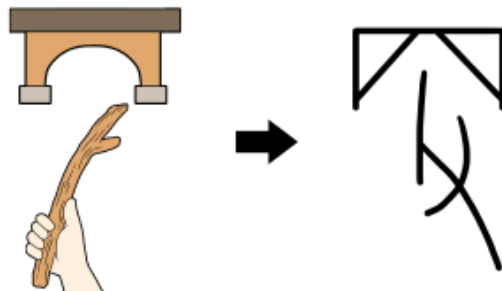
소전

驚

해서

4
-
22

회의문자①



更

고칠 경
| 다시
갱:

更자는 '고치다'나 '다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更자는 '고치다'라 할 때는 '경'이라 하고 '다시'를 뜻할 때는 '갱'으로 발음한다. 更자는 日(가로 왈)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更자의 갑골문을 보면 탁자 앞에 회초리를 든 손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탁자와 회초리를 그린 것이 '개선하다'와는 무슨 관계인 것일까? 이것은 잘 뜻을 저지르면 매를 들어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更

갑골문

更

금문

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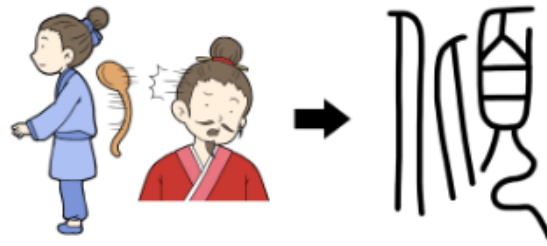
소전

更

해서

4
-
23

회의문자①



傾

기울 경

傾자는 '기울다'나 '바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傾자는 人(사람 인)자와 頃(잠깐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頃자는 匕(비수 비)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것으로 마치 수저로 얼굴을 내리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이전에는 頃자가 '머리가 뺄어지다'나 '기울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하지만 후에 頃자가 '잠깐'이나 '잠시'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人자를 더한 傾자가 '기울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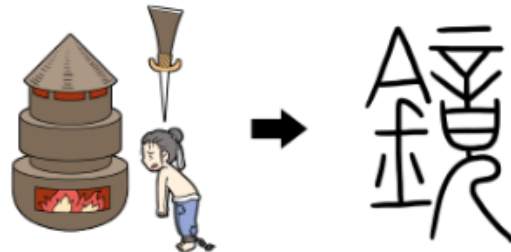
소전

傾

해서

4
-
24

회의문자①



鏡

거울 경:

鏡자는 '거울'이나 '비추다', '거울로 삼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鏡자는 金(쇠 금)자와 竟(다할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竟자는 '다하다'나 '마침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고대에서는 청동의 한쪽 면을 매끄럽게 갈아 거울로 사용했다. 鏡자에 金자가 쓰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거울은 사물을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鏡자에는 '(사물을)비추다'나 '거울로 삼다(본보기로 하다)'와 같은 뜻도 파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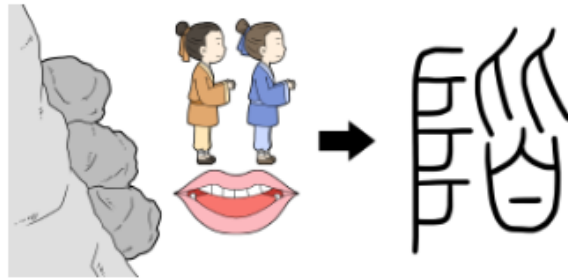
鏡

소전

鏡

해서

회의문자①



階

섬돌 계

階자는 '섬돌'이나 '층계', '차레', '품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階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皆(다 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皆자는 '모두'나 '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계'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階자에서 말하는 '섬돌'은 돌로 만든 계단을 뜻한다. 그래서 언덕을 그린 阜자가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階자는 '계단'을 뜻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품계(品階)'나 '차레', '층'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편이다. 관직의 높고 낮음이나 일의 순서 모두 차례대로 올라가야 하는 계단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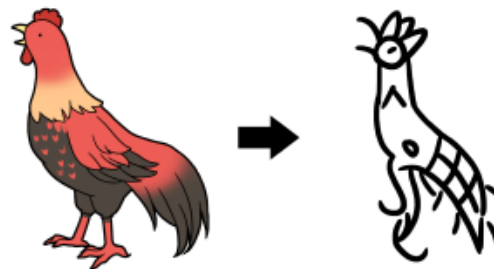
階

소전

階

해서

상형문자①



奚鳥

닭 계

雞자는 '닭'을 뜻하는 글자이다. 雞자는 奚(어찌 해)자와 鳥(새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奚자는 상투를 손으로 잡은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닭 볏으로 응용되었다. 사실 갑골문에 나온 雞자는 좀 더 직관적이었다. 닭 볏과 다리, 꽂지까지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도 이것이 닭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전으로 넘어오면서 닭의 볏은 奚자가 대신하게 되었고 隹(새 추)자가 더해지면서 볏이 있는 새를 뜻하는 雞(닭 계)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해서에서는 隹자가 鳥자가 바뀌면서 지금은 雞자가 '닭'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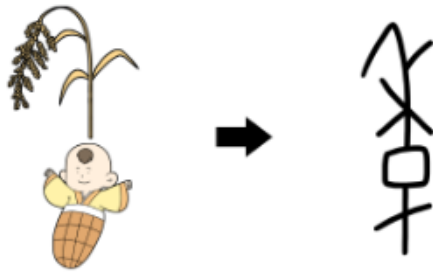
雞

소전

雞

해서

회의문자 ①



季

계절 계:

季자는 '계절'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季자는 禾(벼 화)자와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子자는 포대기에 싸여있는 어린아이를 그린 것이다. 季자는 이렇게 '아이'를 그린 子자에 禾자를 결합한 것으로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 벼를 뜻했었다. 그러나 후에 '계절'이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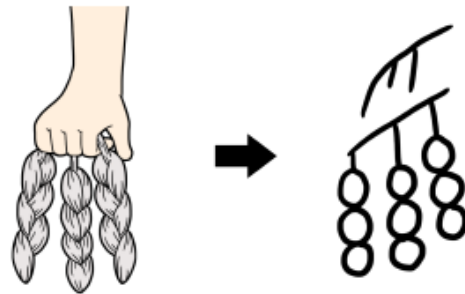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系

이어맬
계:

系자는 '매다'나 '잇다', '묶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系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丿(빠침 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갑골문에 나온 系자를 보면 系자 위로 爪(손톱 조)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실타래를 묶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爪자가 간략화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이처럼 系자는 실타래를 묶는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매다'나 '잇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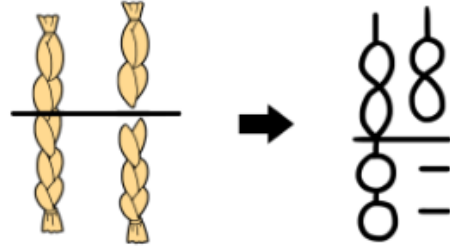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繼

이을 계:

繼자는 '잇다'나 '이어나가다',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繼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繼(이을 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繼자는 여러 개의 실타래가 이어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잇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본래 '잇다'라는 뜻은 繼자가 먼저 쓰였었다. 금문에 나온 繼자를 보면 여러 개의 실타래 속에 잘린 것이 繼 하나 있었다. 이것은 잘린 실타래를 잇는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系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繼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참고로 소전에서는 繼자에 斤(도끼 근)자가 더해진 斷(끊을 단)자가 '끊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系자가 더해진 繼자는 '잇는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繼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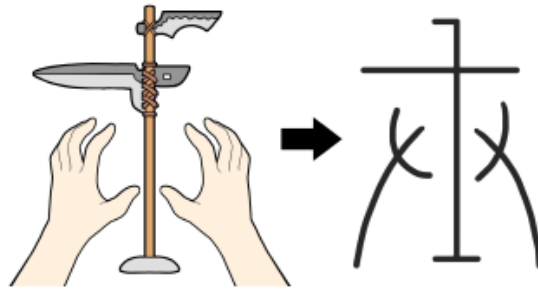
繼

소전

繼

해서

회의문자 ①



戒

경계할
계:

戒자는 '경계하다'나 '경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戒자는 戈(창 과)자와 戒(두손 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戒자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양손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양손을 그린 戒자에 戈자가 더해진 戒자는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戒자는 창을 들고 주위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경계하다'나 '경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戒

갑골문

戒

금문

戒

소전

戒

해서